

410km 압도적 주행거리... 글로벌 '소형 SUV' 주도권 잡는다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64.8kWh 배터리, 150kW 모터 장착 FCA·HDA 등 첨단기술 기본적용

BMW iX1-310km, 벤츠 EQA-300km 동급차량 주행거리와는 비교불가 31일 서울모빌리티쇼서 실차 공개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EV 실내.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EV.

글로벌 전기차선도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내에는 물론 수입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 전기 SUV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디자인, 실내 공간성, 첨단기술 등을 강화한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으로 소형 SUV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선보인 소형 SUV의 주행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등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돋보인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하고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동

급 최대 수준인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할 전망이다. 신형 코나는 신차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했다. 덕분에 공력계수(공기저항계수·Cd)가 동급 SUV 대비 우수한 0.27을 기록했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경쟁 제품 대비 압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BMW 코리아가 3월 국내 출시 예정인 신차 iX1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310km 주행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EQA의 개선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EQA는 300km 초반의 짧은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전기차 모델 XC40 리차지는 한번 충전에 337km를 달릴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푸조 e-2008는 1회 충전시 복합 주행거리가 260km에 불과하다.

또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

전용 모드는 ▲차박 시 실내 조명 밝기에 의한 눈부심 불편을 줄여주는 '실내 조명 최소화' ▲급속 충전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충전 잔여량에 따라 주행가능거리를 중심으로 공조를 최적화해주는 '주행거리 중심 공조제어' ▲배터리 잔량과 목적지까지의 이동 거리를 분석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충전소를 경유지로 안내해주는 'EV 경로 플래너' 등 전기차 특화 기능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코나 일렉트릭 실차를 최초 공개한다.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는 올해 4월,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서 높은 활용도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소형 전기 SUV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외자기업에 훨씬 더 큰 사업기회 줄것”

● 차이나 뉴스&리포트

외국인 투자자 잡기에 열 올리는 中 미중 무역분쟁, 엄격한 방역조치에 기업 투자 '신중'... 반응 '미지근'

중국이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잡기에 나섰다.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는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획기적인 외

자 프로젝트의 시작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사업 기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관련국 등과는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별도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신

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엄격한 방역조치 등으로 외국기업들은 중국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상무 자문역을 맡았던 허웨이원은 "CP TPP이나 일대일로를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이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해 새 지도부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총리직을 이어받을 리창 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신화·뉴스

상하이 당서기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투자 대상지역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ING 아이리스광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약 5%"라는 예상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대외 시장이 약화됨을 보여주며, 중국의 수출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물가 2%대까지 긴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기 우려했다면 금리인하 선택 ‘물가담당’ 의무에 인상·동결 결정”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

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yul115@

KCGI, 한진칼 투자로 5640억 차익 실현

▶▶ 1년 '주총시즌, 행동주의 펀드'서 계속

행동주의 펀드들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되면 단기의 수익만 챙기고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KCGI는 공동 투자자들과 한진칼에 총 3614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분을 호반건설에 넘기며 5640억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7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실질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행

동주의가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나타났으나 단기 주가를 높여 수익을 내는 약탈적인 모습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배당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비판을 피해 가려면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피투자 기업에 대한 가치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관희기자 wkh@